

종교인가, 관계인가 April 23

• 호세아 6:1-6

‘나는 죄선을 다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죄선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죄선이 하나님께도 동일한 의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종교적 행위는 아닙니까? 내 방식의 사랑과 호의가 상대방을 늘 기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일방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며 하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스카이 제서니는 “신앙은 ‘도덕적 공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잘될 것이라….” 선을 행하며 도덕적으로 살았더니 성공했다는 신앙 간증들을 간혹 듣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의 보편적 가치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역동적이며 신묘막측하여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호세이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호 6:3)라고 말합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관심을 헤아리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적인 결속과 결합, 즉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나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②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과 뜻과 관심을 알고 있습니까?